



빌린 얼굴들

인지의 휴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기 전에, 다른 모든 사람이 된다.

부모.

선생님.

친구.

상사.

동반자.

세상은 정체성에 관대하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수천 가지 기성품 버전을 내놓는다.

착한 아들.

존경받는 남자.

성공한 전문가.

믿음직한 남편.

보상은 뻔하다.

인정.

명성.

소속.

대가는 덜 눈에 띈다.

거리.

당신이라는 사람과 당신이 연기하는 사람 사이의 거리.

젊었을 때, 연기는 놀라울 만큼 성공과 닮아 보였다.

나는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

맞추는 법을.

모든 방에서 기대되는 언어를 말하는 법을.

그것은 평생 나에게 문을 열어 준 능력이었다.

그러나 빌린 얼굴마다 작은 빛이 따라왔다.

진정성으로 갚는 빛.

한 조각씩.

극적인 것은 없었다.

파국도 없었다.

침식은 조용히 일어났다.

물이 돌의 모양을 바꾸듯.

세월이 확신의 모양을 바꾸듯.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을 가두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을 가두는 것은 성공이다.

성공은 잘못된 길을 버리기 어렵게 만든다.

박수는 증거가 된다.

성취는 증거가 된다.

역할은 정체성이 된다.

그리고 결국 가면은 그것을 쓴 사람보다 더 많은 보살핌을 받는다.

그 깨달음은 갑자기 오지 않았다.

조각조각 왔다.

여러 해에 걸쳐.

여러 나라를 지나.

여러 관계를 지나.

긴 침묵의 시간들을 지나.

그러나 그 토대는 훨씬 일찍 놓였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무엇이든 됨으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그
첫 몇 해에 놓였다.

세상은 박수를 쳤다.

가면은 번성했다.

얼굴은 기다렸다.

참을성 있게.

말할 차례를.

Ferdinando